



#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 구술사, 문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늘 하는 주장이지만 예술사는 계속 다시 씌어져야 한다. 문학사는 어차피 ‘사실’(facts) 자체를 모두 드러내지 못한다. 문학적 사실들에 대한 선택과 재배열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며, 그 저층에 깔려 있는 원리는 진리 탐구나 사실 고증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하는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며 실존적 선택이고, 각 지점에는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및 이데올로기 사이의 헤게모니 쟁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문학전집이나 교과서에서 보듯이,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주류 문학이라 할 순수문학, 우파문학, 민족주의문학 중심의 이념적 성향이 이른바 ‘정전’(canon)으로 정착되어 있다. 유명 문인들의 증언 기록도 대부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 문단사>, <한국문단 이면사>,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같은 기존의 문단 측면사나 원로 문인들의 인터뷰, 대담 기록도 이미 문단에서 위치가 확고한 문인들의 보조자료로서 일종의 영웅

미담용 회상기 구실을 하는 것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명망가 위주, 주류 중심의 문학사 서술이나 비평의 스타주의를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장 증언 채록을 통해 문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비주류 작가와 주변부 장르를 재조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로 정착된 공적 기록만큼이나 사적 기억과 증언 역시 중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한 구술사 방법론은 한국 근현대예술사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 구술사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특정 사건을 직접 경험한 생존자들의 기억을 탐문하여 현재로 불러내며, 그 기억에 역사적 자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학문적 방법이다. 문학사 사료를 기록하지 못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 서술에 참여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술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혹은 ‘역사의 민주화’ 가능성을 열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차사업으로 수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은 이렇듯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시작되었다. 필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6차례에 걸쳐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의 1, 2단계 기초설계 작업을 비롯하여 이기형, 김규동, 김광림 시인, 남정현, 송병수, 구인환 소설가, 조경희 수필가, 김우중, 신동한 평론가, 김녹춘 아동문학가 등 문학 부문 원로들에 대한 구술채록 사업에 책임, 또는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사실 기억에 의존한 구술보다는 문자 기록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문학 분야에서 구술사의 의미를 제기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 문인의 증언 등 구술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학 연구자들에게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했으나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구술사 이론과 생애사 재구성은 소외된 작가와 작품을 재조명하는 등 새로운 연구동향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누가 말할 것이며, 누가 기록할 것인가

구술사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적절한 구술자와 적절한 채록 연구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가’는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술자의 선정은 시, 소설, 비평, 수필, 아동문학 등 각 장르 간

산술적인 구분보다는 일제 강점, 6.25전쟁, 남북분단, 독재와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굴곡으로 소외된, 혹은 주류에 의해 배제되거나 문자 기록에서 소외된 인물과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의 민주화’라는 구술사의 이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에서 만난 구술자들을 살펴보면, 우리 근현대문학사와 문단에서 주류와 비주류, 중심 장르와 소외된 주변부 장르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지만,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구술자의 면면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 문인은 필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구술자)

- 중심 장르의 주류 문인: 시인 김광림, (황금찬, 김남조, 김종길, 김운성, 김시철, 성찬경), 소설가 구인환, (한말숙, 박순녀), 평론가 김우중, 신동한
- 중심 장르의 비주류 문인: 시인 이기형, 김규동, 소설가 남정현, 송병수, (송원희, 이정호)
- 주변 장르의 주류 문인: 수필가 조경희, (최승범), (시조시인 정완영)
- 주변 장르의 비주류 문인: 아동문학가 김녹촌

지난 6년간의 구술자 선정 기준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문단 전체에서의 위상과 더불어 연령을 중시했고, 장르별 안배에도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사업 기간 내내 고민한 것은 구술자 선정에 있어서, 구술사의 이상과 문단 현실의 조화를 꾀할 방도는 없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 결과 대표성을 갖는 주류 문인들을 구술사의 이념에 배치된다 하여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가능한 포괄하려고 하였다. 다만 그로부터 야기되는 구술채록의 문제점, 가령 구술자와 연구자 사이의 일방적 권력관계가 빛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록연구자가 보다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방법론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채록연구자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구술자 선정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필자는 비교적 주변 장르의 혹은 비주류 원로 문인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문학 분야 전체를 총괄해보면, 시, 소설 등 중심 장르 문인, 주류 문인의 비중이 수적으로 월등히 컸으며, 주요한 사업 대상이었다. ‘역사의 민주화’라는 구술사 이념보다는 기존 문단 권력의 재판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인 역사의 지배담론, 문헌기록의 뒤에 가려져,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문학사의 다양한 면모와 실체를 기억과 증언을 통해 재구

성해보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기존 문단 권력 지형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을 주류, 비주류로 유형화시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주류 문인과의 만남 1, 문단 권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먼저 주류 담론의 담지자인 원로 문인의 경우가 있다. 언급했듯이 문단 안팎에 널리 알려진 주류 문인의 구술은 구술사의 이념에는 상반되는 것이다. 문단 내지 예술계의 현 상황을 고려하건대, 자칫하면 현 단계 문학계를 지배하는 권력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차원으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해서 사업 기획자나 구술자(원로 문인), 선정위원(전문위원), 채록연구자가 한통속이 되어 현재의 문단 권력을 공고히 하는 문학사적 근거 보완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서울대 교수를 지내면서 학계뿐만 아니라 한국문인협회와 펜클럽 등 주류 문단에서 지위가 확고한 소설가 겸 평론가 구인환이 바로 그런 경우라서 필자로서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대표 원로 문인의 경우, 자신의 문학 권력의 자장 안에서 문학사를 재편하려는 욕망이 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럴 때 면담자의 역할이 막중한데, 구술자의 문학적 성과는 물론 구술자가 활동하던 문학 장의 체제(가령, 구술자와 반대에 위치한 문학담론의 생성과 배치 등)에 대한 선이해가 요구된다. 이 점에 유의하여 구술 연구의 초점을 학계 원로가 아닌 소설가로서의 이미지 복원에 두었더니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구술사 방법론은 구술자와 연구자 사이의 공동작업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 주류 문인과의 만남 2, 구술자의 무의식적인 망각과 침묵

반면 기존 보수 문단의 상징적 존재이자 문단 내외 권력을 두루 누렸던 어느 수필가의 구술채록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공식적 담론만 되풀이함으로써 구술채록 연구의 의미를 다소 축소시켰던 경우이다. 해방 직후의 좌우익 대결이나 전쟁기의 부역파/도강파의 알력, 명동의 다방과 술집 풍경 등 구술자 자신만이 증언해줄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을 기대했으나,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역사적 증거가 될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아동문학가 김녹촌 선생과 수필가 조경희 선생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아마도 해방 직후와 6.25 때 좌익사범으로 사형당할 뻔하다가 살아남아 남한에서 크게 출세한 여성 원로로서, 당시 상상을 초월하는 억압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술자의 행위 선택에서 감정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인 무의식적 망각과 침묵이 구술채록 과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반면 구술자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권력과 관련된 것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자랑스레 회고해주었다. 이 경우는 주류 담론에서 소외된 비주류 문학담론의 담지자가 구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구술자 선정 원칙에서부터 빛나간 결과, 실패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비주류 문인과의 만남 1, 구술을 반복하거나 뒤집는 경우

주류에서 소외된 비주류의 담지자를 우선한다면, 우리 문단에서는 친일문학, 좌익 사회주의문학, 월북문인의 문학, 빨치산문학, 노동문학, 저항문학, 아동문학, 통속문학 등 마이너리티 장르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또 다른 권력의 부각이라는 정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한 시인과의 구술채록의 경우, 그동안 주류 문학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된 1930년대 김기림 등의 활동이나 1950년대 모더니즘 운동의 주력이었던

‘후반기’ 동인활동, 그리고 최근 부각된 1970년대 이후의 재야민주화운동과 민족문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성과였다. 그러나 비주류 저항 문학의 원로가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술자가 1950년대 말 ‘만송족’ 문제와 1970년대 재야민주화운동 와중에 벌어진 정계 인사와의 친분관계에 대해 증언했는데, 몇 달 후 보고서 정리 때 이를 완강하게 뒤집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구술사의 원칙상 추후의 운문 개작이 어렵다고 하자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구술한 것을 되돌리려 다양한 채널을 동원했는데, 그 중엔 기관 책임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구술사의 학문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사후에나 구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막무가내여서, 구술사가 진정 ‘역사의 민주화’인지 회의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는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생긴 어려움이라 짐작한다. 문학은 음악, 미술, 무용, 영화 등 타 예술 분야나 민중생활사의 다른 분야에 비해 문헌자료를 절대시하는 문자 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구술 자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학계, 문예지나 언론매체 등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개작, 운문, 편집을 해왔기 때문에 증언, 좌담, 인터뷰 등 기존의 구술 자료들 대부분은 신빙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이 구술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본 사업에선 기초설계 단계부터 운문을 엄격히 금하고 구술자와 연구자 사이의 문단 계보나 학연을 피하는 ‘상피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 이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 거짓된 기록을 하나 더 보태는 격이 될 것이며, 실제로 필자가 참여하지 않은 어떤 문인의 생애사는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몇몇 예외적 상황을 빼고는 비주류 문인의 구술이야말로 문학사의 재구성에 적잖은 기여를 한다. 문단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원로 시인 이기형의 예가 그렇다.

### 비주류 문인과의 만남 2, 금지된 주제가 당당히 역사에 포함되는 순간

원로 시인 이기형의 증언은 구술사 방법론이 문학사 재구성에 어떤 보탬이 될지 알려주는 시금석이 된다. 그는 대표성을 지닌 유명한 문인이 아니다. 1980년에 등단한 늦깎이 시인인 데다 문단에서 소외된 좌파 원로로서, 기존에 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월남 문인이므로 학연, 지연과도 무관하다. 이 점은 역



비주류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인 이기형 선생의 증언을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여럿 드러났다. 만약 그가 문단계에 권력을 가진 주류 문인이었다면, 금기시되고 묵인되던 주제를 과감하게 꺼낼 수 있었을까.

으로 기존의 문단 권력관계나 문헌자료의 제약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증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구술사의 개가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917년생인 이기형 시인의 생애는 이 땅에서 소외된 비주류 좌익의 역사적 운명을 보여준다. 그는 카프 작가 한설야의 소개로 상경하여 몽양 여운형에게 배우고, 마르크스주의 사학자인 문석준과 교류하였으며, 이기영, 임화, 박세영 등 카프 출신 문인과 이태준, 안희남, 지하련 등 훗날의 월북 문인들과 어울렸다. 그의 기억은 매우 구체적이다. 여운형의 첫인상을 말할 때 “눈은 검은 눈은 아니고 약간 누르스름한데 아주 빛나고 인자했어. 이마는 약간 벗어졌는데 그 전체 인상은 귀족적인 거는 있으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호남자 같은 느낌을 받았대구.” 하는 식으로 실감나게 묘사한다. 특히 시인이 감격해하는 장면은 1944년 여름 몽양 여운형의 주선으로 그의 육촌 여동생과 결혼할 때, 몽양이 주례를 서고 카프 비평가 임화와 국문학자 김태준이 축사를 했다는 대목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좌파 지성들이 가회동 골목에서 젊은 시인을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장면의 회상을 거듭하였다.

공식 경력에 의하면 그는 1947년 몽양 여운형 선생의 암살 후 33년 동안 ‘일체의 공적 사회활동을 중지하고 서울 뒷골목에서 칩거’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구술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여럿 드러났다. 모두 공개할 순 없지만, 그 시기 북한에서의 기자 활동과 당에 대한 호감, 6.25 때의 빨치산 활동, 재야 민

주화투사로 활동한 뒷이야기를 녹취할 수 있었다. 그는 여운형의 암살 후 월북하여 <민주조선> 사회부 기자로 있었고, 6.25전쟁 때 월남하여 취재 중 빨치산 활동을 하다 체포, 투옥된다. 이후 엄혹한 분단체제 하에서 구명가계, 학원 강사, 번역, 사설학원 운영 등의 일을 하였다. 만약 그가 문단 및 학계에 영향력이 지대한 유명한 권력 문인, 대표 인사였다면, 과연 세상에 알려져 있는 생애와 증언 이외의 새로운 사실,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을까 싶다.

또한 그동안 남한 문학사에서 소외되었던 한설야, 임화, 이기영 등 카프 작가와 이태준, 안희남, 오장환 등 문학가동맹 출신, 북한문학의 주류가 된 박세영, 박웅걸, 박산운, 황건, 안룡만, 리동규, 천세봉 등에 대한 이기형 시인의 귀중한 증언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학사의 기초자료가 될 터이다. 이와 같이 구술사의 본래 이념대로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대항 담론을 제시할 때, ‘끊임없이 다시 씌어지는’ 문학사 내지 구술 문학사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했다.

### 주류 담론에 대항하는 ‘구술의 문학사’를 위하여

거듭 말하지만, 문학은 다른 예술장르와 달리 문자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구술사적 접근의 의의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문학사의 주류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존 문학사는 대체로 시, 소설, 비평 등 중심 장르, ‘문협 정통파’ 등 주류 문인 중심으로 편제되어 왔다. 구술사는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금기시켰거나 은폐, 묵인, 간과했던 새로운 사실(인물이나 사건)을 풍부하게 발견해, 새로운 문학사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주변부 문학사 즉, 마이너리티 문학담당층, 비주류 장르, 지방문학, 소외 문인 등을 복권시키고 타자의 시선으로 문단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주류 문학사와 접목되어 새롭고 역동적인 ‘유목적(nomadic) 상상력’을 문학사 전면에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글쓴이 김성수 1992년 성균관대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후 한국현대문학 및 북한문학을 전공하였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문학 부문 기초설계 및 연구책임자, 채록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